



자유주의 정보 20-86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on Miltimore,

9 of the 10 Richest People in the World Are Self-Made Entrepreneurs

3 December, 2019

### 세계 10대 갑부 중 9명은 자수성가한 사업가들이다

매년 포브스는 가장 부유한 미국인 400명의 명단을 발표한다. 아마존의 창립자인 제프 베조스는 2019년부터 2년 연속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해있다.

1	2	3	4	5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베르나르 아르노	카를로스 슬림
\$1310억	\$965억	\$825억	\$760억	\$640억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버크셔 해서웨이	루이비통	그루포 카르소
<b>자수성가</b>	<b>자수성가</b>	<b>자수성가</b>	승계	<b>자수성가</b>
6	7	8	9	10
아만시오 오르테가	래리 앨리슨	마크 저커버그	마이클 블룸버그	래리 페이지
\$627억	\$625억	\$623억	\$550억	\$508억
자라	오라클	페이스북	블룸버그	구글
<b>자수성가</b>	<b>자수성가</b>	<b>자수성가</b>	<b>자수성가</b>	<b>자수성가</b>

베르나르 아르노를 제외한 위 부자들의 공통점은 자수성가를 통해 성장했다는 것이다.

래리 앨리슨은 1944년 유대인 미혼모로부터 태어나, 입양되어 키워졌다. 22살에 그는 시카고 대학교를 중퇴하고 캘리포니아로 건너가 전기회사에 입사했다. 1977년에 그는 그동안 모은 \$1200을 가지고 두 명의 동료와 함께 작은 회사를 차렸다. 그리고 CIA의 데이

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약을 맺었고, 그 이름을 오라클로 했다.

아만시오 오르테가는 스페인의 작은 마을에서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청소년일 때부터 양품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재고를 쌓아두는 것보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임을 16살에 깨달았다. 1975년에 그는 모은 돈을 이용해 작은 가게를 차리고 자라(Zara)라고 명명했다. 40년이 넘게 지난 후, 자라는 아직도 “빠른 패션” 전략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있으며 1주에 두 번씩 옷 재고를 갱신하고 있다.

빌 게이츠는 13살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게임을 하고 있을 무렵 자신의 첫 번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는 1973년에 하버드에 입학했지만 2년 후에 중퇴하여 그의 고향 친구인 폴 앨런과 함께 미국 뉴멕시코주에 있는 앨버커키로 갔다. 그들은 그 곳에서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인 마이크로소프트 베이직을 만들고 상업화했다.

카를로스 슬림은 1940년에 멕시코 시티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레바논 이민자였는데, 아버지로부터 회계에 대해 배웠다. 아버지는 1953년 슬림이 13살이었을 때 세상을 떠났다. 그 때 슬림은 이미 처음으로 국채와 멕시코 대형 은행의 주식을 구매했다. 1961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증권 중개인이 되어 하루에 주로 14시간씩 일했다. 4년 후 그는 종합증권 회사를 세우고, 추후에 거대 복합 기업이 될 그루포 카르소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래리 페이지는 컴퓨터 공학 교수의 아들로 태어나 연결망의 연결 구조와 권위적인 인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페이지는 스탠포드 대학원 동료인 세르게이 브린과 함께 이 연구를 활용해 구글의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그 밖에도 워런 버핏은 청소년기에 신문을 팔면서 수천 달러를 모으고 17살에 그의 사업을 매각하였다. 마크 저커버그는 대학교 동료들과 함께 대학교 기숙사에서 페이스북을 만들었다. 마이클 블룸버그는 투자은행에서 퇴직금도 없이 해고당한 후 사업 정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회사를 차렸다. 제프 베조스는 17살 학생의 배에서 태어났고, 프린스턴에 입학하기 전까지 고등학교 졸업생 대표자이자 맥도날드의 즉석요리 전문 요리사였다.

우리는 보통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한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는 사실

이 아니다. 물론 갑부들이 처음부터 출발선이 같았던 것은 아니다. 워런 버핏은 국회의원의 아들이었고, 빌 게이츠와 마크 저커버그 등은 엘리트 사립 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자수성가한 사업가들이 비전을 바라보며 위험을 감수하는 과정을 통해 혁신을 이루어내고 크게 갑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업가정신이다.

번역: 안여태산

출처: [https://fee.org/articles/what-9-of-the-10-richest-people-in-the-world-have-in-common/?itm\\_source=parsely-api](https://fee.org/articles/what-9-of-the-10-richest-people-in-the-world-have-in-common/?itm_source=parsely-api)